

## SERMON 10 SEPTEMBER 2017

내일 저는 윤리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각각의 의무 교육은 매년 두 가지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매우 복잡한 주제인 소셜 미디어에 대해 알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실제 상황에 기초한 많은 사례 연구들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고, 하나를 골라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읽는 것은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훈련에 관한 특별한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모두 경계 문제와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일 훈련을 위해 저는 목사인 친구의 50 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던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대체적인 미래"이라는 주제로 화려한(위축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인생이 어떻게 돌아 갔을 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목사는 노숙자 의상을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코트를 입고 하루 이틀 동안 면도를 하지 않고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는 갈색 종이 가방에 술병을 넣어 가져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든 그들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파티가 끝난 몇 일 후에 그는 교회 한 교인으로부터

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한 여성도는 몇몇 교회 교인들의 주의를 받았다고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페이스북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들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 자신이 페이스북에 없었고 컴퓨터 기술이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가서 페이스 북을 열어 달라고 하고는 그 자신의 대단히 평판이 나빠 보이고 보아하니 술에 취한 듯 보이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이제 모든 공동체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작성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 1.3, 1.4 등등의 윤리 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워크샵을 듣는 내가 몇몇 교회들, 어떤 사람들, 목사들, 또는 평신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줄 때 저를 대단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규율에 관한 윤리 규약과 규율 위원회, 그리고 그 위원회가 흑사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전한 장소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대단히 슬펐습니다. Uniting 교회 또한 교회 안전 훈련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물의

물리적 안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교회에서 놀랄 만한 수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삶과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구성된 이 교회는 상당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로울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받기 위해 교회 평의회나 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300 년 전에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젊은 여성들, 나쁜 길로 빠졌던 적이 있는 여성들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무서운 남자들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윤리 규정이나 윤리 강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설정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가 설정되고 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할 때 몇 주가 경과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복음서를 읽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 LUC (린필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해 할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하거나 심지어 그르게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면, 고소인에게 가서 이야기 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목격자로 다시 방문합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잠시 동안이라도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떤 장소에서 아직까지 일어납니다, 아미시 공동체 같은 곳 말입니다, 누군가가 피할 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세리와 이방 사람들로 대접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도,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에 대처하고 잘못된 것에 직면하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다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점심 식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 중 한 명이 와서 그의 문에 노크를 하고 앉아서 그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고,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혀를 보호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가 직접 찾아와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상처가 남나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나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분노에 관심을 가지나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와 불만을 퍼뜨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상황이 고조되고 깊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균형을 잃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에 두더지가 파 놓은 흠 두둑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어떤 관계나 교회들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행동들은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몇 주 전에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두 명의 성직자들이 그들의 성도 중에서 어떤 남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 해변을 산책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교인들에게 교회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배우자를 때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언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발생할 때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사람들은 잘못되고 해로운 행동에 대한 이해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공공연하게 표현된 것이어서 이 젊은 기독교인 공동체가 이 어린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에 착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 지이다”. 그들은 규정이나 윤리 강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의 공동체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생활 방식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2 천년 후에 우리는 그들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는 양 떼를 거느린 양치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길을 잃었고, 양치기는 99 마리 양을 떠나 길 잃은 하나를 찾습니다. 양치기는 작은 하나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최대 7 번까지요? 예수님은 70 번 7 번이라도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교도들의 새로운 공동체의 용서는 이전에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전통과 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큼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것을 발견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확실히 쉽지 않으며 용서는 겸손함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잘못된 것과 부당함은 다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는 단지 사악한 핑계의 연장입니다. 세리와 이방 사람들은 외부에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 공동체에 이끌려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을, 한 교회를, 한 사회를, 한 믿음을 갈라 놓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세대에서 대물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대하고, 심지어는 차이를 무릅쓰고 듣는 것도 많이 도와 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와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화해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 일까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각의 개인으로서 하나로 연합함의 소명입니다. 어떤 집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항상 그렇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동반하고 용서의 빛의 길을 발견하지 못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비밀스러운 수치에 대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시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런 종류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자신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수용과 사랑, 포용, 은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길을 잃은 양들을 찾으러 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생명의 하나님의 힘찬 용서를 보여 줍시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